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5>



삼계의 법왕 석가모니불

나는 10여년전까지 유가, 도가의 결출한 인물들, 제2의 예수라는 어느 종교인, '부처의 화신'이라는 기인들과도 깊이 사귀면서 그들의 내면세계를 검증해 바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존재의 근본인 빛(性)을 보고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소식을 알아 공, 무아의 겹겹의 부를 줄 아는 수준(성중, 아라한)까지 이른 이도 있었습니다.

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불신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붓다 중의 붓다이시고 법왕중의 법왕이십니다. 진정경전에 불과를 이루신 삼계의 왕이십니다. 그후에도 여러 번 불과를 증하시고 보살로도 살아가신 지존이십니다. 남섬부주의 교주이십니다. 무아 속 절대세계에 청정법신(眞佛)을 두고 당신의 원만보신(佛身)은 적정불계에 계십니다. 3차원 세계에 속한 중생들의 알음알이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니십니다. 석가모니불의 법신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붓다의 법신이 흡수된 대지(大智)의 광명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 법신의 당

완전해탈 하려면  
三身 갖춘 붓다 돼야

대열반, 완전해탈을 이루려면 삼신(三身)을 갖춘 붓다가 되어야 합니다. 무량광으로 이뤄진 자기 불신을 얻어야 합니다. 이 거저 몸 속의 주인공 영체를 빛 덩어리로 정화해야 합니다. 무수, 무량겁을 마음 공부, 보살행을 하지 않고선 이리 될 이가 없습니다. 아뢰아시도 녹고 9식(10식) 모두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 속에 있는 4영체가 자기 불신 빛덩어리와 격을 같이해서 이성을 마칠 땐, 자기 불신과 하나로 결합합니다.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를 증하려면 우선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무량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붓다의 경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상품상 보살이 사람으로 와서 붓다가 되는 경계입니다. <능엄경>에서 5음이 녹으면 눈은 800공덕을 얻어 윤회안 세계를 본다 했으나, 그런 대아라한도 무량광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또 하

처를 존보다 떠남 없이 인도 영축산 영산공에 계시면서 <법화경> '종지용출품'에서 볼 수 있듯, 수많은 상주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남섬부주에 붓다 이불 선근 종자가 오면 여기서도 가끔 주(住)하십니다. 당시 계신 곳 '사바가 곧 적광토'라는 말이 그래서 맞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간절히 찾는 이가 있으면 백천만 의 화신을 나눌 수 있기에 화신을 내어주시는구나. 남섬부주에 변화신으로 현신 하실 때는 항상 껌껌 머리 깎으시고 108가사를 수하십니다 (다른 붓다들은 32조 가사임). 일거수 일투족은 자비의 극치이십니다. 법(법기, 진리) 자체이십니다. <화엄경>에서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송들은 오히려 미흡할 정도로 희유하고 거룩하신 대법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곡이 심한 우리 불가에서조차 '석가모니불'을 얻지 않는지 슬픈 일입니다. <천천 현자사 회주>

# “행동 하나하나에 발원하세요”

## 이종린 거사의 보현행원 수행법

### 수행 잘잘못 내 주위사람 통해 확인 “‘깨달음 병’ 벗어나 부처님 행 실천을”

저서를 펴내며 보현행원 수행법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선지식을 만나기 힘든 바쁜 생활인에게 맞는 수행법으로 보현행원만큼 원용무애하고 뛰어난 수행법이 없다”는 이 원장. 보현행원의 가르침이 수승한 법공양이 될 것이라는 그의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  
가령 화두를 들어도, 깨달아 부처 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깨달음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들면 화두 드는 것이 그대로 보현행원이다. 가정 주부가 아침밥을 지을 때도 “우리 ‘남편 부처님’ ‘아이 부처님’들이 이 공양을 받고 건강하고 부처님 시봉 공양 잘하기 발원”하면 밥 짓는 것이 그대로 보현행원이다.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살던 일상생활, 삶의 현장 그대로가 생계의 수단이나 욕망의 달성 현상이 아니라 수행도량이 된다.

■ 보현행원의 열가지 수행  
열 가지 보현행원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만나는 이마다 지성껏 공양 드리고, 잘못된 일은 즉각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만나는 이마다 부처님 법문 듣기를 청하며, 이 세상 모든 부처님들이 더 오래 우리 주변에 머무시어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바라고, 부처님을 받들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맹세하며, 곳곳의 중생들을 부처님 대하듯 섬기고, 행여나 생긴 이익이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이다. 이 열 가지 행위는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즉각적인 수행효과  
행원을 시작하며 온갖 장애가 극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행원은 하는 것만큼 즉각적인 공덕을 가져 온다. 우선 부정적이던 나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며, 내 자신이 기쁨과 환희 속에 잠긴다. 또한 내 주위의 분들이 나로 인해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 부처님 품에 들게 되어, 내가 바뀌고 다른 이도 바뀌며 더불어 이 사회가 바뀐다.

■ 경전이 스승 되는 쉬운 수행  
다른 대부분의 수행법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행원만큼은 그렇지 않다. 스승 없이도 행원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으며 나의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즉 내 주위에 나로 인해 이익을 받는 이가 많아지고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록 내 행원은 바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록 행원을 잘못 하고 있는 징표가 된다.

■ 우리 모두 성불로 이끄는 수행  
행원은 우리 모두를 성불로 이끄는 수행법이다. 일반적인 수행법은 우선 본인의 발전에는 기여하지만 타인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만 행원은 그 하나 하나가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행원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같은 수행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이 행원은 비록 나 혼자 할



보현행원 수행을 보급하고 있는 이종린 원장은 한국불교는 ‘깨달음의 병’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행’을 삶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라도 그 행원은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성숙을 가져와 사회가 밝아지고 온 국토가 밝아지게 한다.

■ 모든 수행법의 귀결  
보현행원은 상호 배타적일 수 있는 모든 수행법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바로 법공양의 의미를 지닌 ‘여설수행공양(如說修行供養)’이 그것이다. 여설수행공양은 참선, 염불, 관법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하나로 묶어 오로지 부처님으로 돌아가게 한다. 부처님이 원하시는 수행, 내 자성 부처가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불리보리심공양(不離菩提心供養)에 이르면 더 할 말이 없게 되니, 화두를 들고 목조를 관하고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 떠나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이종린 거사의 보현행원 수행법 강의에 앞서 입장중인 청년 불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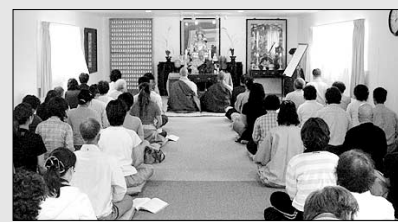
## 뉴질랜드 남국정사에 한국 간화선 바람

### 교포 60명 7일간 옹맹정진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도 한국 의 간화선 수행 불이 조용히 일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국 최초 사찰인 오렌드란

국정사(주지 동진)는 2월 25부터 3월 3일 까지 서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초청, 간화선(禪話禪) 참선수행 대법회를 가졌다(사진). 이번 법회에는 60여명의 교포 불자들이 입 제법문 뒤에 화두를 받고 7일간 남국정사에서 화두일념으로 옹맹정진했다.

입제법문에서 수불 스님은 “만고에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이 밝은 빛을 찾아, 다시는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매일 화두 점검과 질의 응답으로 불자들을 지도했다.



이번 법회를 성공리에 마친 동진 스님은 “최근 한국의 간화선 열기를 해외에 옮겨 불자들의 삶에 해탈의 빛과 향기를 전하고자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며 “자신을 찾는 구

원의 메시지가 된 이러한 참선수행법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독교 문화권에 불교의 대 사회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동진 스님은 오렌드란에 한국 교회가 100여 개에 달하는 현실(한국 사찰은 2개)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 프로그램과 문화 강좌를 체계적으로 도입, 해외 포교에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발원으로 지난해 11월 남국정사 주지로 부임했다.

김재경 기자

**2004년도 신입생모집안내**  
제5기 심리상담사 2급자격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 그리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않으셨습니까? 본 대학의 상담 아카데미 과정에 입학하시면 자기문제를 살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며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상담교육, 훈련 전문 기관인 「한국상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	기간	교육대상	교육장기비	교육특전
제5기 심리상담사 과정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자기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분</li> <li>상담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li> <li>종교인 사외복지사, 의료계종사자</li> <li>자정업인 등 대인관계 활동이 많은 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금 8만원 (교재포함)</li> <li>수강료 월6만원 (자격검정료, 집단수련 비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료자는 진행을 거쳐 「심리상담사 2급 민간자격증 수여 (자격기본법 제15조 관련)」</li> </ul>

**2. 교육과목**  
- 상담학, 심리학, 성격검사 및 적성검사, 상담의 적용기법, 불교와 상담가족 및 부부상담, 정신역동적 부모교육, 요가와 심리치유, 음악과 심리치유, 신경언어설계화 치유, 집단 상담 진행 등  
-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구비서류** 입학신청서 1통(본원양식), 주민등록본 1통, 사진 4매(반영판)

**4. 접수기간** 2004년 3월 19일 금요일까지 (전화 접수 후 온라인 입금 가능)  
부산은행 : 247-02-002554-1 박재현  
금액 140,000원 (입학금 80,000원, 3월분수강료 60,000원)

**5. 개강일** 2004년 3월 19일(금) 오후 7시

**6. 신청문의** 전화(051)633-5633 / FAX(051)633-2322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4번출구 → 불교방송 뒤편 문화빌딩 5층)

종교법인 불교복지보건대학 (한국상담연구원, 불교상담이카데미)

**불교신자들의 만남, 불행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에 목망이 받으십시오.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자임 씨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대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 영혼 잠 못 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 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움 마음 그대 찾아 가고 싶어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우, 초·재운 신원 확실히 하고 직업 확실히 안 미안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편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견누비면(의물)	면(의물) 광복	모직	마(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삼, 조끼, 바지 180,000</li> <li>동방, 바지 180,000</li> <li>두루마 25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삼, 조끼, 바지 160,000</li> <li>동방, 바지 160,000</li> <li>두루마 14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li> <li>동방, 바지 220,000 ~ 300,000</li> <li>두루마 180,000 ~ 25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삼, 조끼, 바지 170,000</li> <li>동방, 바지 170,000</li> <li>두루마 140,000</li> </ul>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마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폼베 60,000 ~ 셔츠 30,000 ~

대구고속터미널 종전 동부경찰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053)741-8131  
FAX: (053)741-8132  
H.P: 011)549-8130

**봉인사 3월 수련 안내**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

- ◆ 지, 수, 화, 풍, 공 의 오대 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대승 밀교계통의 자비관법수행
- ◆ 안 내: 지은스님(전 송광사 강주)
- ◆ 일 시: 3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18일(목)까지 (5박 6일)
- ◆ 준 비 물: 간편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 ◆ 수련비용: 18만원(교재비 포함)  
(중, 고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도(茶道) 수련**

- ◆ 안 내: 지은스님(전 송광사 강주)
- ◆ 일 시: 3월 14일(일) 오후 1시 반부터 18일까지 매일 출퇴근 가능
- ◆ 등 차 금: 4만원(교재비 별도/교재는 “찾진속에 달이 뜨네”(봉인사에 비취되어 있음)
- ※ 문 의: 031) 574-5585

Homepage: www.bonginsa.net  
E-mail: bonginsa@hanmail.net

**봉인사 한길정진원**